

성교육에 따른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 변화

김 은 주*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여성의 정신적인 능력이나 지적능력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바라보면서 여성은 부당하게 취급했다면 이는 문제 시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십 세기동안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신체 및 정신능력이 모두 우월하다고 믿어온 탓에 아직도 상당수의 현대인들도 그러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를 흔히 성차별주의(sexism)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믿으면서 여성은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Youn, 1999). 이러한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차별을 당하는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끌게 된다. 즉, 남성들은 대표적인 역할인 가장으로서 일생동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짐뿐만 아니라 성격이 남성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건강한 정서를 발달시키는데 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Lee, 1994). 따라서 정부와 학계에서도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성역할에 대한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계에 양성성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MOE, 1999).

이러한 성차별의식이 아동이나 청소년 시절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인 이후 시기에 비하여 더 크고 중요하다. 이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인 성역할 정체감은 5-6세

부터 발달해 오다가 청년 후기에 거의 확립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단 한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으며 이것은 결국 적응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Youn, 1999).

남녀평등의식은 청소년들의 성행동이나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청소년기에는 본질적으로 밀바닥에 내재된 성욕이나 성충동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자칫 겉잡을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기이다(Jung, 1992). 즉, 이러한 성차별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윤리를 인식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워 각종 성희롱, 성폭력, 10대 임신, 미혼모, 낙태의 범람, 매춘 등의 성적욕구와 관련된 성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Suk, 1999). 이는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성문제는 잘못 형성된 성역할 정체감으로 인해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성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자청소년의 경우 남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이 지나치게 발달할 때, 이성에 대하여 합의나 동의를 구하기 전에 힘이나 압력을 행사하여 성행동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Kim, 1998).

이와 같은 사회문제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여러 가지 사회제도의 틀이 바뀌어야 하는데, 특히 교육을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인지구조와 함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우선적으로 남녀평등의 성역할 정체감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성교육이 절실하다(윤가현, 1999).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성의 사회화가 특히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억압해온 전통적 가부장적 성문화를 전승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고(Lee, 1998; Joe, 1995), 성교육 또한 그 방식이나 교육자의 의식에 있어서 편향적 성역할 구조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Hwang, 1993). 즉 성은 본능적, 충동적, 성기 중심적, 육체적 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자아존중과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정서적, 인격적 의사소통의 관계이자 사회 문화적 총체적 관계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는 남성다움의 성문화가 주입시켜온 왜곡된 성개념과 편견, 성과 사랑의 이원화로 비인간화되는 이성관계를 지양하고 정서적으로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쌍방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성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을 말한다.

청소년기 초기인 14세에서 17세 사이에는 정체성 혼미에 빠지기 쉽고 이성과의 관계형성을 열망하는 이성지향성이 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시기를 교육적으로 잘 활용하면 청소년 자신의 성적 모호성은 감소되고 새로운 형태의 성역할 정체감을 획득할 수 있다. 이에 중학생 시기에 성역할 정체성을 남녀평등적, 양성적으로 형성시켜주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되면 이에 따른 바람직한 성태도나 성행동의 형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Seo, 1975; Kim, 1989; Song, 1995; Kim, 1997; Jang, 1999; Kim, 2000).

최근 간호학에서도 청소년의 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여 개인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의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여 성지식, 성행동 및 성태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이의 기초가 되는 남녀평등의식이나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양성적이며 남녀평등의 의식을 기초로 한 성교육을 통해 남녀평등의식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서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의 함양과 성교육 및 심리적 적응과 성장을 도울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남녀평등의식을 기초로 한 성교육을 통해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성교육 후 대상자의 남녀평등의식 변화를 분석한다.
- 2) 성교육 후 일반특성에 따른 남녀평등의식 변화를 분

석한다.

- 3) 성교육 후 성적 경험에 따른 남녀평등의식 변화를 분석한다.
- 4) 성교육 후 성태도에 따른 남녀평등의식 변화를 분석한다.

3. 용어 정의

1) 남녀평등의식 : 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능력, 속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Kim & Jung(1999)의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측정도구를 청소년에 맞게 수정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이다.

2) 성교육

본 연구에서 성교육은 16주에 걸쳐 총 18시간 동안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대상 학교의 보건교사가 성교육 내용을 계획하고 이를 실시하였다. 성교육 내용은 건강의 이해와 안전교육, 성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탄생, 남·녀 생식기관과 2차 성징, 좋은 이성친구가 되려면?, 성폭력 예방법 1, 성폭력 예방법 2, 성의 상품화와 음란물 관리, 성차별과 양성 평등, 인생설계교육(나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나의 인생의 목표는?, 체험학습, 나의 인생계획, 당당하게 의사소통하기, 위생관리, 성! 나는 얼마나 알고있을까? 등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남녀평등의식과 관련된 내용은 총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녀평등의식을 기초로 한 성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사후간 남녀평등의식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2. 연구대상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남녀 공학 B 중학교 1학년 8개 반 중 4개 반을 임의 추출하여 남녀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중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에서 성실하게 응답한 남학생 67명, 여학생 70명 총 137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3. 연구절차

2001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15일까지 16주 동안 각 반별 35~40명 단위로 총 18시간씩 4개 반에 대한 남녀평등의식을 기초로 한 성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는 교육자원부 성교육 자문위원회로 위촉된 본 조사 대상 학교의 보건교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성교육 시작 전에 대상자의 사전 남녀평등의식과 일반적 특성, 성적 경험, 성태도에 대한 내용을 설문조사 하였으며, 성교육 후 사후 남녀평등의식을 조사하였다.

4. 연구도구

1) 남녀평등의식

본 연구에서는 Kim & Jung(1999)이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도구를 청소년에 맞게 수정 개발한 도구로 내용상 4개의 하위 구조인 가정, 교육, 사회, 직업생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총 4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측정하는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0이었다.

2) 성적 경험

성적 경험에 대한 설문지는 성과 관련된 경험에 관한 사항 중 성인비디오 본 횟수, 성차별 경험 유무, 성차별 경험 장소, 자위행위 경험, 이성친구 유무, 부모의 개방성 등 총 9문항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성태도

성태도에 연구도구는 문현고찰을 통해 연구자가 작성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욕구, 성인 비디오 물, 낙태, 결혼전의 신체적 접촉, 순결, 성폭력, 성충동, 원조교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3이었다.

5. 분석방법

자료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성교육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의 변화는 paired t-test,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적 특성, 성태도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의 변화는 unpaired t-test와 ANOVA, 사후분석은 Duncan tes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남녀평등의식의 변화

성교육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점수는 사전 2.99 ± 0.38 에서 사후 3.10 ± 0.44 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t=4.378$, $P=0.000$), 성교육 후 남녀평등의식이 높아졌다(Table 1). 이를 남녀평등의식 영역별로 보면, 사전에 가정, 직업생활영역에 비해 남녀평등의식이 낮았던 사회 ($t=3.885$, $p=0.000$), 학교($t=2.017$, $p=0.046$) 생활영역에서 유의하게 남녀평등의식이 높아졌다. 반면에 가정, 직업생활영역의 남녀평등의식은 사전·사후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2. 일반특성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의 변화

성교육 후 남학생($t=2.693$, $p=0.009$), 여학생 ($t=3.525$, $p=0.000$) 모두 남녀평등의식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그러나 남·녀 간 남녀평등의식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종교,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에 따른 남녀평등의식변

〈Table 1〉 The Difference in Gender-Egalitarianism between Before and After Sexuality Education
N=137

	Before	After	Difference	t	p
	$M \pm SD$	$M \pm SD$	$M \pm SD$		
Gender-Egalitarianism	2.99 ± 0.38	3.10 ± 0.44	0.11 ± 0.29	4.38	0.000^{***}

*** $p=.001$

〈Table 2〉 The Difference in Gender-Egalitarianism between Before and After Sexuality Education by the Gender-Egalitarianism's Domains

N=137

Domains in Gender-Egalitarianism	Before	After	Difference	t	p
	Mn±SD	Mn±SD	Mn±SD		
Home Life	3.18±0.57	3.16±0.48	-0.02±0.51	-0.500	0.621
School Life	3.04±0.57	3.13±0.52	0.08±0.49	2.02	0.046*
Social Life	2.75±0.45	2.91±0.42	0.16±0.49	3.90	0.000***
Occupational Life	3.18±0.64	3.18±0.49	-0.01±0.51	-0.18	0.856

*p=.05, ***p=.001

〈Table 3〉 The Difference in Gender-Egalitarianism between Before and After Sexuality Education by Sex.

Sex	N	Before	After	ta	p	Difference	tb	p
		Mn±SD	Mn±SD			Mn±SD		
Male	67	2.77±0.32	2.87±0.40	2.69	0.009**	0.11±0.31	-0.20	0.845
Female	70	3.21±0.32	3.32±0.35	3.53	0.000***	0.12±0.28		

a : Paired t-test, tb : Unpaired t-test, **p=.01, ***p=.001

〈Table 4〉 The Difference in Gender-Egalitarianism between Before and After Sexuality Educ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	Difference	F or t	p	Duncan
		Mn±SD			
Religion	① Christianity	63	0.12±0.31	1.91	0.133
	② Catholicism	14	0.25±0.22		
	③ Buddism	17	-0.00±0.21		
	④ None	39	0.11±0.31		
Economic Status	High	47	0.18±0.31	2.05	0.133
	Middle	74	0.08±0.27		
	Low	12	0.04±0.37		
Education Level in Father	Middle School and Below	39	0.15±0.31	0.41	0.664
	High School	62	0.10±0.30		
	College and Over	32	0.10±0.28		
Education Level in Mother	Middle School and Below	45	0.12±0.32	0.48	0.621
	High School	69	0.10±0.30		
	College and Over	19	0.17±0.23		

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Duncan 사후분석에 따르면, 종교 중 불교에 비해서 천주교를 믿는 학생들이 성교육 후 남녀평등의식이 유의하게 높아졌다(表 4).

3. 성적 경험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의 변화

성인비디오 본 횟수($F=4.04$, $p=0.020$), 자위행위 경험 여부($t=-4.38$, $p=0.001$), 이성친구 유무 ($t=-2.13$, $p=0.043$)에 따라 사전·사후 남녀평등의식의 변화에 차이가 있었다. 즉, 성인비디오 본 횟수가 적은 경우, 자위행위 경험이 없는 경우, 이성친구가 없는 경우가 경험이 있거나 많은 경우에 비해 성교육 후 남녀

평등의식이 높아졌다(表 5).

4. 성태도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의 변화

대부분 바람직한 성태도를 지니고 있는 경우 성교육 후 남녀평등의식이 높아졌다. 이 중 '낙태는 피임의 일종이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t=-2.22$, $p=0.028$), '결혼 전에는 남녀 모두 순결을 지켜야 한다'에 동의하는 경우($t=2.80$, $p=0.008$), '성폭력은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일어나는 우발적 사건이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t=1.98$, $p=0.050$)에서 성교육 후 남녀평등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表 6).

〈Table 5〉 The Difference in Gender-Egalitarianism between Before and After Sexuality Education by Sexual Experiences

N=137

Variables		Difference	F or t	p	Duncan
		Mn±SD			
No of Watching the Adult-Vvideo	① None	0.20±0.30	4.04	0.020*	①)②
	②1-2 times/month	0.15±0.27			①)③
	③1-2 times/week	0.02±0.31			
experience in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yes	0.10±0.295	-0.51	0.614	
	no	0.13±0.301			
Place on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Home	0.1±0.27	2.01	0.138	
	School	0.16±0.30			
	Society	0.02±0.32			
masturbation	yes	-0.13±0.169	-4.38	0.001**	
	no	0.13±0.300			
Opposite Sex	yes	-0.01±0.271	-2.13	0.043*	
	no	0.13±0.300			
Openness in Father	Open	0.13±0.27	1.67	0.193	
	Middle	0.08±0.32			
	Conservative	0.22±0.25			
Openness in Mother	Open	0.14±0.28	0.45	0.641	
	Middle	0.09±0.29			
	Conservative	0.13±0.36			

*p=.05, **p=.01

〈Table 6〉 The Difference in Gender-Egalitarianism between Before and After Sexuality Education by Sexual Attitudes

Sexual Attitude	Agree	Disagree	t	p
	Difference(Mn±SD)	Difference(Mn±SD)		
It's possible to be pregnant at only a sexual intercourse.	0.10±0.276	0.12±0.308	-0.28	0.778
Abortion is the kind of contraception.	0.04±0.297	0.16±0.290	-2.22	0.028*
If you love a partner, could embrace, kiss and pet even in unmarried.	0.08±0.322	0.16±0.247	-1.52	0.132
Should be keep the virginal purity before marriage.	0.14±0.304	-0.02±0.216	2.80	0.008**
A compulsive and one-sided sexual behavior is a sexual violence.	0.11±0.303	0.11±0.252	0.11	0.914
It's easy to frankly open my views to a opposite sex.	0.10±0.296	0.12±0.299	-0.31	0.754
It's allowed to do, if you were not strongly reject sexual behavior demanded by the opposite sex.	0.09±0.313	0.12±0.290	-0.63	0.530
Human is capable of control a sexual compulsion.	0.11±0.310	0.13±0.255	-0.43	0.668
I can do minority-intercourse if I would get the needed things.	-0.08±0.295	0.13±0.293	-2.06	0.069
Sexual violence is the unexpected accident occurred due to uncontrolled sexual compulsion in men.	0.16±0.283	0.06±0.305	1.977	0.050*

*p=.05, **p=.01

IV. 논 의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의 성행동은 유교를 비롯한 동양사상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남성들의 성경험은 어느 정도 허용된 반면, 여성들은 성적인 순결을 간직하기를 바라는 등 윤리적인 기준이 남성에 의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녀유별의 교육 틀 안에서는 성교육 역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이분법을 전제로 성별문화를 재생산시키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성문화가 다른 문화보다도 더 가부장적인 성별문화의 전통을 내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교육은 이를 균절하는 교육으로서 특별한 중요성과 의미를 지닌다. 이에 성

교육은 청소년 세대가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내면화해 온 성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남녀간의 문화적 격차와 부조화를 극복하여 양성 평등적 성정체감을 형성시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의 형성이 가장 활발하며 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남녀평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기를 중학생으로 보고 남녀평등의식을 기초로 한 성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대상자의 남녀평등의식이 바람직한 성향으로 높아졌다. 특히 성인비디오, 자위행위 및 이성친구 등이 노출된 경험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이 노출된 경우에 비해 남녀평등의식이 높아졌다.

현대 청소년 성문화는 성의 피해적 사회화(victim socialization)를 형성하여 여성은 남성보다 성적으로 열등하고 약한 존재로 사회화하고 있으며 여성은 성적으로 피해자가 되기 쉬운 불리한 조건에 순응하도록 길들이고 있다. 특히 포르노나 성인용 잡지는 성 쾌락주의나 여성 비하적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Jo, 1988). 이러한 성적경험은 남녀평등의식이 비교적 정립되지 않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주입시킬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아직 성적 경험에 많지 않은 학생들의 남녀평등의식은 비교적 왜곡되거나 정립되지 않아 교육을 통해 변화 가능한 것에 비해, 성적 경험이 많은 학생들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Kim(1989)도 성역할 정체감은 청년 후기에 거의 확립되고 일단 한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어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교육은 성역할 정체감이 확립되기 이전인 청소년기 이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영역별 남녀평등의식 변화를 보면,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사에서 남녀평등의식수준이 낮았던 사회, 학교생활 영역에서는 교육 후 남녀평등의식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실제로 학교교육은 성 역할과 관련하여 남녀 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학생들은 수동적이고 섬세하며 의존적인 행동과 역할을, 남학생들은 보다 활동적이고 탐구적이며 과제 지향적인 행동과 역할을 강화 받는다. 심지어 같은 학급의 반장이라 할지라도 여학생은 교사의 심부름과 같은 반복적이거나 수동적인 일을, 남학생의 경우 학급을 통솔하거나 대표성을 지닌 역할을 담당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청소년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교의 구조, 교과과정 내용, 교사와 또래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 및 역할은 왜곡된 성역할 정체감을 발달시켜

낮은 남녀평등의식을 정립시켜 왔으나, 이러한 학교생활 영역별 남녀평등의식은 본 연구에서 인지적인 교육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교 성별 구성 형태는 1990년대 이후 남녀공학 체제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인데, 이론상 비 공학은 전통적 성 역할 발달을 촉진하며, 남녀공학은 보다 평등한 성 역할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Jung & Jung, 1995). 특히 우리나라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가 부재할 뿐 아니라 학교의 성교육이 대부분 남녀 분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성간의 성적 편견이 심화 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학교의 성교육은 집단은 자발적인 참여자로서 구성되어야 하며, 특히 여학생과 남학생간의 의사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데에 주력하여 남녀간의 성적, 문화적 거리를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직업생활영역에서는 직업에 대한 성적인 선입견 즉, 여성에게 지배적인 직업과 남성에게 지배적인 직업이 정해져 있어 이를 변화시키기는 매우 어려우며, 근래에 들어 많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변화하기 쉽지 않은 남녀평등의식영역으로 제시된바 있다(Kim, 1995). 본 연구에서도 직업생활영역에서의 남녀평등의식은 교육 후에도 변화되지 않았다.

김과 안(2000)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남녀평등의식은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여성의 태도가 남성에 비해 더 진보적, 평등적으로 나타난 연구결과(An 등, 1991; Kim 등, 1999; Chae, 1999)와 같이 우리나라 남학생의 남녀평등의식은 일반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낮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남성이 주도해온 남성권위주의 사상에 의해 영향 받아온 결과로, 특히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역할 정체감을 어떻게 형성하고 인식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이에 영향 받은 성행동의 특징 즉, 청소년 성문제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간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주로 가해자에 속하는 남자청소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남녀평등의 성역할 정체감을 심어주어 상대 여학생의 성적 주체성을 배려하고 인정한 후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삼는 바람직한 성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성교육 후 남녀평등의식수준이 사전에 비해 높아졌다. 그러나 성교육 전 남학생의 남녀평등의식은 여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무엇보다도 남학생의 변화

를 이끌어 내는 것이 주요한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교육 후 남학생의 남녀평등의식 향상이 여학생과 차이가 없었다. 즉, 이는 남학생의 남녀평등의식변화를 위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성적 편견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남학생,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가치관이 어떻게 다르며 그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어려서부터 자기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특정한 행동에 대한 기준을 습득하는 학습 과정을 사회화라고 표현하며, 특히 성적 욕구와 관련된 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시켜 내재화하는 과정을 성적사회화(sexual socialization)라고 부른다 (Youn, 1998). 그러나 동일한 시대에 살아가는 개인들도 성에 대한 태도나 행동특성들이 다소 다를 수 있는데 그 차이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속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 후 남녀평등의식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종교,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남녀평등의식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종교별로는 불교를 믿는 학생에 비해 천주교를 믿는 학생의 남녀평등의식이 성교육 후에 유의하게 높아졌다. Kim & Ahn(2000)은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남녀평등의식이 높아서 종교활동이 남녀평등의식에 어느 정도 영향 하였다고 하였다. 사실 과거에는 남녀평등의식에서 종교가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었으나 근대사회에서는 그보다도 교육이나 매체의 영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여 교육을 통한 사고의 변화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 실정이다(Atwater, 1992, Youn, 1998).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도 남녀평등의식 변화에 일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색채가 영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1999)의 연구에서 응답자 자신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난 경우는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은 교육 후 남녀평등의식 변화에는 영향하지 않았다. 또한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남녀평등의식변화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아동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중요 인물인 부모는 생후 초기부터 성역할 습득을 위한 훈육 자로서 자녀의 성역할을 발달시킨다(Kim, 1995).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역할 재구조화 시키

는데 있어서 오히려 가부장적 성역할 의식을 심어주어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등 자녀의 성역할 발달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1998). 성정체성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강조하는 이러한 경향성은 주로 유아기와 아동기에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역할 발달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개방성이 자녀의 남녀평등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았으나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도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의 변화를 보면, 대부분 바람직한 성태도를 지니고 있는 경우 성교육 후 남녀평등의식이 높아졌다. 선행 연구들을 보면, 연구 대상 및 측정 도구, 문화적 차이에 따라 연구결과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 견해는 한 개인이 어떠한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느냐에 따라 외형적 행동, 정서적 반응, 인지적 기능, 내면적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다시 성역할 규범을 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Im & Jung, 1997). 이에 성태도와 성역할 정체감은 상호 영향인자인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대상자의 남녀평등의식은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긍정적으로 높아졌으며, 또한 성인비디오와 이성친구 그리고 자위행위 등 성과 관련된 경험에 노출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이 노출된 경우에 비해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평등의식을 기초로 한 성교육에 따라 남녀 중학생의 남녀평등의식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또한 일반적 특성과 성적 경험, 성태도에 따라 남녀평등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개 남녀 중학교 1학년 137명을 대상으로 2001년 9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16주에 걸쳐 총 18시간에 걸쳐 남녀평등의식을 기초로 한 성교육을 수행한 후, 교육 전과 후에 김과 정(1999)이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도구를 청소년에 맞게 수정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남녀평등의식수준을 조사하였다. 이에 성역할 정체감의 형성이 가장 활발하며, 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남녀평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기를 중학생으로 보고 남녀평등의식을 기초로 한 성교육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남녀평등의식이 긍정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성교육

- 전 남학생의 남녀평등의식은 여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무엇보다도 남학생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주요한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교육 후 남학생의 남녀평등의식 향상이 여학생과 차이가 없었다.
- 둘째, 종교,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 부모의 개방성은 교육 후 남녀평등의식변화에 영향하지 않았으나 일부 종교, 즉 불교를 믿는 학생에 의해 천주교를 믿는 학생의 남녀평등의식이 성교육 후에 유의하게 높아졌다.
- 셋째, 성인비디오, 자위행위 및 이성친구 등에 노출된 경험에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이 노출된 경우에 비해 남녀평등의식이 높아져, 성적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의 남녀평등의식은 비교적 정립되지 않아 교육을 통해 변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바람직한 성태도를 지니고 있는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성태도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비해 성교육 후 남녀평등의식이 높아졌다.
- 결론적으로 남녀평등의식을 기초로 한 성교육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남녀평등의식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 여학생의 의식변화도 중요하지만,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효과적인 남녀평등의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였다. 또한 성적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의 의식변화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평등의식이 비교적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 이전에서부터 성역할 정체성을 양성 평등적으로 형성시켜주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 그러나 본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표본추출을 통한 다수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성교육 효과에 영향하는 내적 심리적 요인인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자기효능 등 제 요인들을 고려한 광범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 ### References
- An, S. D., Kim, Y. H., Jegal, J., Lee, Y. S., Lee, M. J. (1991). A Study on the Women's Consciousness and Life-Style, *Women's Studies*, 9(2), 111-149.
- Atwater, E. (1992). *Adolescence*. Englewood Cliff, New Jersey : Prentice Hall.
- Chae, H. S. (1999). *Correlations Among Sex Role Stereotypes, Sex Role Identity, Self-esteem and the Perception of Home Economic Education of Students at Middle and High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Im, J. B., Jung, H. J. (1997). *Sex Role and Women*. Seoul : Hakjisa.
- Jang, H. S. (1999). *Psychology of Adolescence*. Seoul : Hakjisa
- Jo, H. J. (1988). *Sexual Culture on Adolescents*.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14(1).
- Jung, E. K. (1992). *In the View Point of Interests, Knowledge, Experiences and Sex Education on Sex*.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Jung, H. S., Jung, K. A. (1995). *A study for the Improvement for Coeducational High School Management*. Reports 200-13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Jun, Y. H. (2000). A Study of the Effects on the Korean Adolescents Sexual Role Identity and Attitude by the Audio Visual Program for Sexual Education. *J Korean Acad Nurs*, 30(6), 1556-1568.
- Kim, H. S. (1995). *Human and Gender*. Seoul: Edtech.
- Kim, H. T. (1989). *A Study of the Development and the Measurement of Ego-Identity in Korean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on.
- Kim, J. Y., Ahn, C. S. (2000). A Study on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Among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 6(3), 329-343.
- Kim, Y. H. (1999). *Development of a Korean Gender Equalitarianism Scale(KQES)*. '99 Reports 250-4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im, Y. H., Jung, K. A. (1991).
- Kim, Y. H. (1988). A Survey on Sex-role Recognition and Needs of Sex Education in Korea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1(1), 31-55.
- Lee, E. J. (1999). Needs for Sex Knowledge in Adolesce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 5(2), 211-234.
- Lee, Y. J. (1994). *Sex and Human*. Seoul : Dongnyuk.
- Seo, B. Y. (1975). *A Psychological Study on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buk University, Daegu.
- Song, M. J. (1995).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 Jihaksa.
- Suk, J. C. (1999). *Adolescents' Counselling with Statistics*. Seoul : Doseo.
- Youn, G. H. (1992). The Effect of Sexuality Education on the Attitudes toward Women. *J of Modern Social Science*, 139-147.
- Youn, G. H. (1998). *Sexual Culture and Psychology*. Seoul : Hakjisa.
- Youn, G. H. (1999). *Sexism and Equality*. Keynote Address in Seminar Organized by the Korean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Korea.

- Abstract -

The Changes in Gender-Egalitarianism after Sexuality Educ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Kim, Eun Ju*

Purpose: In an attempt to measure the changes in gender-egalitarianism after sexuality education based on the gender-egalitarianism in middle school students, this study was carried

out. **Methods:** The subjects were 137 students (67 boys and 70 girls) in 4 classes that were randomized from among 8 classes of first graders in a coeducational middle school, in Seoul. By the school nurse with the assistance of an advisory committee on sex education by the MOE, sexuality education was implemented based on gender-egalitarianism. The content was presented over 18 hours during 16 weeks, from September, 2001 to December, 2001. For the pre and post check on gender-egalitarianism, a Gender Egalitarianism Scale modified by the researcher was used. **Results:** After the sexuality education based on the gender-egalitarianism, there was a significant elevation in gender-egalitarianism($t=4.378$, $p=0.000$).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ean changes in gender-egalitarianism according to religion, economy level,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and openness of parents. And little experiences in adult video, no experience in masturbation, and being without the opposite sex were related to significant elevations in gender-egalitarianism. The case of the having the positive sexual attitudes showed a significant elevation in gender-egalitarianism as compared with the case of having negative sexual attitudes. **Conclusions:** Based on these results, sexuality education based on gender-egalitarianism for youth was effective in elevating gender-egalitarianism scores. Because the case of the wide experiences with sexual behaviors showed a tendency to make low gender-egalitarianism, the education program would be effective to implement early in the school as childhood is a period in which children have a non-established sex-role.

Key words : Sexuality education, Middle School Students, Gender-Egalitarianism

* Dep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